

데이트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박 은 선¹⁾ 박 지 선[†]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본 연구는 데이트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의 네 가지 하위요인(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과 통제행동 간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인 자기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20-30대 미혼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하고,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스스로에 대해 부적절감이 높을수록, 공허감을 많이 느낄수록, 자기차별을 많이 할수록, 실수불안이 클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하며, 자기몰입을 많이 할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주요어 : 내면화된 수치심, 데이트폭력, 통제행동, 자기초점적 주의, 자기몰입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1)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E-mail: jjipark@sookmyung.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2년 7월 경기도에서는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오피스텔에 일주일간 감금,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2023년 5월 서울 금천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여자친구를 보복살인하는 등 데이트폭력은 사회문제로서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그 위험성이 점차 고조되어 장기적으로는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으나, 여전히 연인간에 발생하는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되는 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숙정, 권호인, 2021). 데이트폭력 유형 중에서도 통제행동은 특히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나(김동현 등, 2021), 데이트폭력이 살인 등 중대 범죄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김가은, 2022; 서경현, 안귀여루, 2007). 그러나,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 또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이재란, 정근선,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및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이 높은 요인인 자기몰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데이트폭력

수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속적인 자아의 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성격으로 내면화된 특질 수치심과 함께, 특정한 상황에 대한 내적 반응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나타나는 상태 수치심으로 나누어진다(이인숙, 최해림, 2005; 조윤경, 현명호, 2020). 우선 내

면화된 수치심은 특질 수치심에 해당하는데, 발달 초기부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비롯된 수치심이 개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인숙, 최해림, 2005). 한편, 대인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특정한 상황과 관련 있는 수치심인 관계적 수치심은 상태 수치심에 해당한다. 관계적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염려와 관련된 외적 수치심과,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가족적 수치심으로 이루어져 있다(최현수, 신희천, 2016). 이와 같이 수치심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측정할 수 있는데, 개인이 수치심을 경험하는 영역별로 나누어 측정하기도 한다. 즉, 수치심 경험은 자신의 태도나 습관, 능력 등과 관련한 성격적 수치심, 신체나 외모로 인한 신체적 수치심, 대인관계에서의 잘못이나 실수에서 유발되는 행동적 수치심으로 나누어 측정하기도 한다(신재은 등, 2015). 이때, 관계적 수치심과 수치심 경험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달리 단기적인 수치심을 측정한다(최현수, 신희천,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의해 유발되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상태 수치심 보다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만성화된 수치심인 내면화된 수치심에 주목하고자 한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이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등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감정인 수치심을 자아 전반에 받아들인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만 유발되는 정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성격적 특성이다(김용태, 2010;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을 결함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스스로를 평가절

하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모욕감과 분노를 경험한다(남순임, 2018). 수치심을 내면화한 사람은 정서표현을 어려워하여 대인관계에서 회피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최임정, 심혜숙, 2010). 때로는 다른 사람과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수치심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도 한다(최임정, 심혜숙, 2010).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는 Cook(1988)의 Internalized Shame Scale(ISS)이 있는데, 여기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네 개의 하위요인들(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등)로 이루어져 있다. 부적절감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부족하고 못한 존재로 느끼는 특성이다(김용태, 2010; 정남운, 유은영, 2015). 부적절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보잘것 없는 존재로 평가하며, 결함 있는 자신을 다른 사람도 무시할 것이라고 믿는다(이인숙, 최해림, 2005). 공허는 자신에게 부족한 내적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 신체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이인숙, 최해림, 2005). 자기처벌은 자신의 과거를 되새기며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상하고 평가하여 과거의 실수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자책한다(Hundt & Holohan, 2012). 실수불안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결점과 실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안이다(이인숙, 최해림, 2005). 즉, 자신의 단점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지는 경향을 보인다(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태영, 심혜숙, 2011).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남의 평가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집착과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다(윤혜영, 강지현, 2015). 또한, 대인관계에서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며 부적절하게 여긴다(Wojcik, et al., 2019). 이때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등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한다(이지연, 2008; Tangney & Dearing, 2002).

내면화된 수치심은 공격성과도 관련이 있다(Bochon et al., 2023).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공격성을 이용하여 자아를 보호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Elison et al.,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부적절하게 느낄수록 공격성이 높아졌다(정남운, 유은영, 201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관계 공격성이 높아졌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역기능적인 공격행동을 하였다(안현진, 금명자, 2018).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집착하고 공격행동을 보이는데(Elison et al., 2014), 이는 데이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데이트폭력과 관련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per et al., 2005; Hundt & Holohan, 2012; Kivisto et al., 2011).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이지연, 2008),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거나 수치심을 경험할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데이트폭력을 가하기도 한다(Hundt & Holohan, 2012).

이처럼 내면화된 수치심과 신체적, 정서적 폭력 등 다른 데이트 유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왔으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찾

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이나 결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통제 또는 지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이태영, 심혜숙, 201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내면화된 수치심의 네 개 하위요인들은 서로 간에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공허와 자기차별은 스스로에 대해 갖는 내적인 감정이지만, 부적절감과 실수불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감정으로,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결점이 드러날까 염려하는 감정이다(강에스더, 201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거 내면화된 수치심을 단일한 특성으로 연구해 온 선행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내면화된 수치심의 네 가지 하위요인(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 각각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상대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양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신체적, 성적 폭력 등의 물리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그리고 통제 행동으로 정의된다(홍영오 등, 2015; Straus, 2004). 데이트폭력 신고는 2017년 14,136건, 2018년 18,671건, 2019년 19,940건, 2020년 18,945건, 2021년 57,297건 등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22). 특히 2020년과 2021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수를 비교해보면, 폭행·상해는 약 17%, 체포·감금·협박은 약 11%, 성폭력은 약 18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

다(치안정책연구소, 2022).

데이트폭력은 통상적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통제행동 등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홍영오 등, 2015).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을 때리고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임정하, 최정원, 2022). 정서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언어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하는 등 상대의 자아를 훼손하고, 모욕감이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임정하, 최정원, 2022). 성적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강요 혹은 협박하는 행동이다(Straus et al., 1996). 통제행동은 연인 관계인 상대방의 사고나 감정,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관리하거나 조종하려는 행동으로, 대인관계를 제한하거나 옷차림을 간섭하고 일정을 통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홍영오 등, 2015; Hamberger et al., 2017; Stark, 2007). 과거에는 통제행동을 정서적 폭력에 포함하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폭력과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권진숙, 박시현, 2019; 김가은, 2022; 김진숙, 문화진, 2021; Johnson et al., 2019). 즉, 통제행동은 상대방을 자신의 주도권 아래 두기 위한 도구로서 데이트 관계에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허수진 등, 2019; Johnson et al., 2019).

통제행동은 다른 데이트폭력 유형에 비해 가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 바 있으나(박영주, 2018),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여 암수범죄 가능성도 크다(오주령,

박지선, 2019).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 피해자들은 자존감 상실과 정서 마비 등의 증상을 겪으며, 때로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Matheson et al., 2015).

그간 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존감, 폭력정당화(홍영오, 2017), 피해자의 음주, 자기통제력(박영주, 2018), 불안애착(허수진 등, 2019), 가정폭력(유고은, 이창배, 2021), 충동성, 관계안정성(정소연 등, 2021), 연인 간 나이 차(Aizpurua et al., 2021), 폭력허용도(김가은, 2022) 등이 연구되었다. 일례로, 가정폭력 피해는 성인이 된 후 통제행동에 영향을 주었고(유고은, 이창배, 2021), 음주를 많이 하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연인의 행동을 제한하였다(박영주, 2018). 또한 데이트 관계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나이가 많을 때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Aizpurua et al., 2021). 이처럼 통제행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배경이나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본 연구는 대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며 내면화된 수치심과도 관련이 높으나(김혜원, 이지연, 2017; 이인숙, 최해림, 2005) 아직 데이트폭력이나 통제행동과 관련해 연구된 바 없는 자기초점적 주의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병리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통제행동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기초점적 주의와 통제행동,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초점적 주의는 자기 생각이나 기분 등 자신의 내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이다(이지영, 권석만, 2005). 자기초점적 주의

는 적응적 차원과 부적응적 차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Ingram, 1990). 먼저 적응적 차원에서 자기초점적 주의는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도식이 활성화되어, 자신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빠르게 회상하고 처리할 수 있다(이인혜, 2008). 그러나 부적응적 차원의 자기초점적 주의인 자기몰입은 병리적인 특성으로, 자신에게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외부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직성이 두드러진다(이지영, 권석만, 2005). 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도 자신에게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만, 다양한 측면에 주의를 고르게 분배하며 외부로 융통성 있게 주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지영, 2010).

자기몰입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 정서와 두려움이 심화되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병리적 특성과도 연관이 높다(Ingram, 1990; Mor & Winquist, 2002). 자기몰입은 부정적 사고를 활성화시켜 우울을 증가시키며(김아롱 등, 2017),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보다 부정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증을 지속할 위험이 더 높다(이인혜, 2008). 또한, 자신에게 몰입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결여되고 활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박지영, 박주희, 2019). 더불어, 지나친 자기몰입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증가시킨다(류석진, 조현주, 2017).

자기몰입은 대인관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몰입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감소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이 떨어지며(임천규, 장은비, 2023),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김혜원, 이지연, 2017). 따라서, 자기몰입은 데이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기몰입은 인지

적 편향과도 연관성을 보이는데, 자기초점적 주의가 과도할 경우 사회적 상황을 더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등 부정적 편향이 나타나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다(Higa & Daleiden, 2008). 더불어 자기몰입은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자기몰입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5). 따라서, 자기몰입이 높은 사람은 데이트 관계에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상대방의 행동을 지나치게 위협적으로 편향되게 해석하여, 이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통제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자기몰입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조민희, 홍혜영, 2017). 따라서, 연인 간의 문제 또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대처하려 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기몰입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조절에 곤란을 겪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지영, 2011; 조은실 등, 2018). 따라서, 데이트 관계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외부로 주의를 돌리지 못한 채 융통성 없이 상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것을 강요하는 통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몰입은 내면화된 수치심과도 관련이 높다(이인숙, 최해림, 2005).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에 민감한 사람은 자신에 몰입하므로(이지영, 권석만, 2005),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예민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자기몰입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

히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므로(남순임, 2018),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더 몰입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현재의 상태와 목표한 기준이 불일치할 때 자기몰입하므로(이인혜, 2008),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지면 수치심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몰입이 심해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각 하위요인(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과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통제행동 사이에서 자기몰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내면화된 수치심(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이 높을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 2. 내면화된 수치심(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이 높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 3. 자기몰입이 높을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 4. 내면화된 수치심(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하고,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할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애 경험이 있는 20대-30대 미혼 남성 100명과 여성 100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데이트폭력 피해자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30대가 25.6%를 차지하는 등 20-30대가 62.4%로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치안정책연구소, 202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20대와 30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데이트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기 위해 연애 경험이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업체를 이용하여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답에는 대략적으로 10-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가자의 연령은 20세부터 39세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0.52세($SD = 4.79$)이었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30.80세($SD = 5.08$)이었고, 여성의 평균 연령은 30.24세($SD = 4.49$)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 Scale)

연구 참가자의 내면화된 수치심 측정을 위하여 Cook(1988)의 Internalized Shame Scale(ISS)을 이인숙과 최혜림(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시킨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개의 하위 요인들(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 등)

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자신이 매우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 그런 경우가 없다'에서부터 '5점: 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총 24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Cronbach's α) .957이었다. 더불어, 하위요인인 부적절감의 내적 일치도는 .924, 공허의 내적 일치도는 .911, 자기차별의 내적 일치도는 .856, 실수불안의 내적 일치도는 .840이었다.

자기몰입

연구 참가자의 자기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지영과 권석만(2005)이 개인의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30 문항으로,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자기몰입 등 총 2가지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자기몰입을 측정하는 2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핀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말을 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쓴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연구 참가자의 자기몰입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자기몰입의 내적

일치도는 .956이었다.

통제행동

연구 참가자의 통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관한 연구(홍영오 등, 2015)에서 데이트 관계인 상대에 대한 통제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통제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는 총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등이 포함된다. 해당 척도는 그간 데이트폭력 통제행동을 측정하는 국내 선행연구(김가은, 2022; 김동현 등, 2021; 이한울, 박지선, 2022; 허수진 등, 2019)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개별 문항에 대해 '1점: 전혀 없다'에서 '5점: 매우 자주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통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통제행동의 내적 일치도는 .914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SPSS 26.0 및 PROCESS macro 4.2(Hayes, 2022)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을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고,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았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의 네 개 각 하위요인(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과 통제행동 간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매개효과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반복추출 횟수는 10000번으로 설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 기준으로 값을 산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t -test 결과

먼저,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연령,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 자기몰입, 통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실수불안에서만 남녀 사이에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였다($t(198) = -2.247, p < .05$). 즉, 여성($M = 12.86, SD = 3.47$)이 남성($M = 11.71, SD = 3.76$)보다 실수불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변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과 함께, 내면화된 수치심의 각 하위요인(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과 자기몰입,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 우선 연구 참가자의 연령은 다른 모든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1	2	2-1	2-2	2-3	2-4	3	4
1. 연령	1							
2. 내면화된 수치심	.057	1						
1) 부적절감	.063	.929***	1					
2) 공허	.054	.873***	.705***	1				
3) 자기차별	.002	.885***	.767***	.745***	1			
4) 실수불안	.073	.782***	.627***	.639***	.603***	1		
3. 자기몰입	.019	.552***	.507***	.496***	.510***	.403***	1	
4. 통제행동	-.020	.365***	.329***	.321***	.433***	.176*	.467***	1
평균	30.52	60.38	24.21	12.45	11.43	12.29	52.84	19.65
표준편차	4.793	18.557	8.223	4.884	4.284	3.655	16.867	7.978
왜도	.117	.181	.236	.300	.506	-.387	-.046	1.279
침도	-.964	-.561	-.564	-.758	-.487	-.541	-.951	1.089

* $p < .05$, *** $p < .001$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및 네 가지 하위요인인 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 서로 간의 정적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및 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 모두 자기몰입, 통제행동과 각각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더불어 그 하위척도인 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 각각이 높을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하고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통제행동 또한 더 많이 하였다.

더불어, 자기몰입은 통제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기몰입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불안)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model 4(Hayes, 2022)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부적절감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및 그림 1 참조). 그 결과, 부적절감이 자기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 = .1040, p < .001$), 자기몰입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였다($b = .191, p < .001$). 한편, 부적절감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120, n.s.$).

표 2. 내면화된 수치심-부적절감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 ²
					LL	UL		
부적절감	자기몰입	1.040	.126	8.279***	.792	1.288	68.534	.257
부적절감	통제행동	.319	.065	4.897***	.191	.447	23.976	.108
부적절감	통제행동	.120	.070	1.704	-.019	.259	29.337	.230
자기몰입	통제행동	.191	.034	5.573***	.124	.259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간접효과	Boot SE	LL 95% CI	UL 95% CI
자기몰입	.199	.047	.116	.3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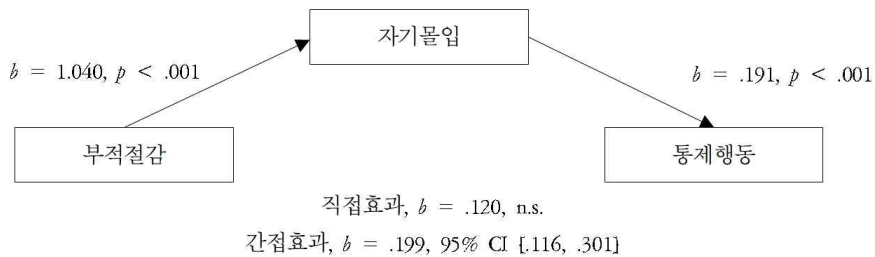


그림 1. 부적절감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통제행동에 대한 부적절감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자기몰입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적절감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이 완전매개하였다. 이는 부적절감이 높을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하고,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할수록 데이터 관계에서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의 두 번째 하위 요인인 공허와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표 3 및 그림 2 참조).

그 결과, 공허가 자기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 = 1.713, p < .001$), 자기몰입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였다($b = .193, p < .001$). 그러나 공허가 통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 = .193, n.s.$).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공허와 통제행동 사이에 자기몰입을 투입하여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자기몰입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허와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자기몰입이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공허감을 많이 느낄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하고,

표 3. 내면화된 수치심-공허와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 ²
					LL	UL		
공허	자기몰입	1.713	.213	8.039***	1.293	2.133	64.619	.246
공허	통제행동	.524	.110	4.766***	.307	.741	22.715	.103
공허	통제행동	.193	.118	1.641	-.039	.425	29.202	.229
자기몰입		.193	.034	5.667***	.126	.260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간접효과	Boot SE	LL 95% CI	UL 95% CI
자기몰입	.331	.077	.193	.49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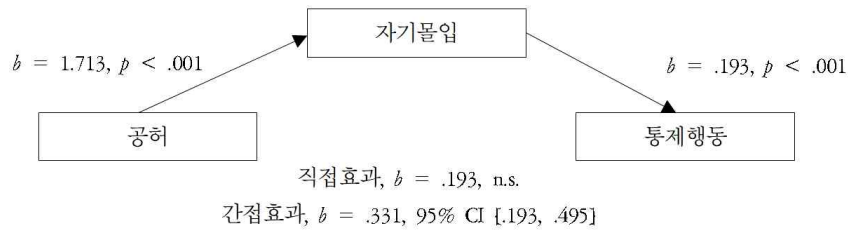


그림 2. 공허와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할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세 번째 하위 요인인 자기차별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표 4 및 그림 3 참조).

그 결과, 자기차별이 자기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 = 2.007, p < .001$), 자기몰입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 = .157, p < .001$). 더불어, 자기차별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b = .490, p < .001$).

부트스트래핑 실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자기차별과 통제행동 사이

자기몰입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차별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를 자기몰입이 부분매개하였다.

이는 자기차별이 높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와 더불어 자기차별을 많이 할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하고,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할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의 네 번째 하위요인인 실수불안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표 5, 그림 4 참조), 실수불안이 자기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 =$

표 4. 내면화된 수치심-자기처벌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 ²
					LL	UL		
자기처벌	자기몰입	2.007	.241	8.337***	1.532	2.481	69.508	.260
자기처벌	통제행동	.806	.119	6.758***	.571	1.042	45.674	.187
자기처벌	통제행동	.490	.132	3.719***	.230	.750	36.328	.269
자기몰입		.157	.034	4.702***	.091	.224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간접효과	Boot SE	LL 95% CI	UL 95% CI
자기몰입	.316	.081	.169	.48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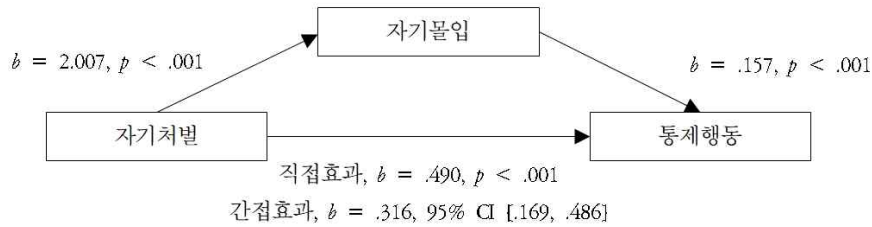


그림 3. 자기처벌과 통제행동 간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표 5. 내면화된 수치심-실수불안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 ²
					LL	UL		
실수불안	자기몰입	1.858	.300	6.188***	1.266	2.450	38.294	.162
실수불안	통제행동	.385	.153	2.520*	.084	.686	6.349	.031
실수불안	통제행동	-.031	.150	-.204	-.327	.266	27.507	.218
자기몰입		.224	.033	6.869***	.159	.288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간접효과	Boot SE	LL 95% CI	UL 95% CI
자기몰입	.415	.103	.236	.637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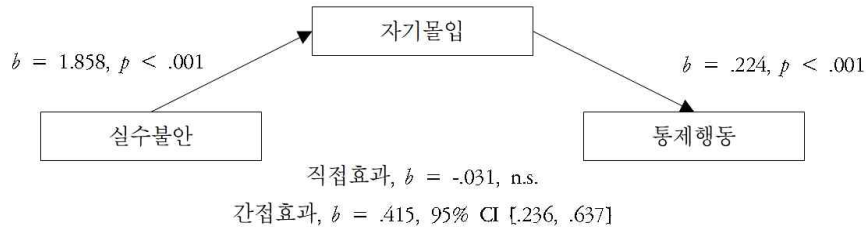


그림 4. 실수불안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1.858, $p < .001$) 자기몰입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였다($b = .224, p < .001$). 그러나 실수불안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31, n.s.$).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실수불안과 통제행동 사이에 자기몰입을 투입하여 간접효과를 살펴보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자기몰입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실수불안과 통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자기몰입이 완전매개하였다. 이는 실수불안을 많이 느낄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하고,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할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우선 내면화된 수치심(부적절감, 공허, 자기 처벌, 실수불안)이 높을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여겨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실수나 결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는데(윤혜영, 강지현, 2015),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높았다. 내면화된 수

치심과 자기초점적 주의를 특히 사회불안이나 우울 등과 관련하여 각각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김안나, 최보영, 2019), 둘 사이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재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인관계 문제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몰입이 미치는 영향과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부적절감, 공허, 자기 처벌, 실수불안)이 높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만성적인 모욕감과 분노를 경험하며 수치심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도 하는데(이지연, 2008), 이러한 특성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내면화된 수치심이 다른 유형의 데이트폭력, 즉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는 존재하나(Harper et al., 2005; Kivisto et al., 2011),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통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의 네 가지 하위요인 모두 통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내면화된 수치심 및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통해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계획 등의 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몰입이 높을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 3 또한 지지되었다. 자신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일수록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상대의 반응을 위협적으로 편향되게 해석하는 등 높은 자기몰입은 원활한 대인관계를 저해한다(김혜원, 이지연 2017; Higa & Daleiden, 2008). 본 연구 결과 이러한 자기몰입이 높을수록 데이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상대의 감정이나 행동 등을 간섭하고 제한하려 하는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그간 자기초점적 주의는 우울이나 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본 연구는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데이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제행동과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K-MBSR) 등을 통한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개선을 통해(이유경 등, 2013), 자기몰입의 수준을 감소시켜 데이트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자기몰입이 데이트폭력의 다른 유형(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과도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통제행동 사이에서 자기몰입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이때 자기처벌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하위요인(부적절감, 공허, 실수불안)에 대해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자기처벌의 경우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스스로

에 대한 부적절감이 높고 공허함을 느끼며 실수불안이 높을수록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하고, 자기몰입을 더 많이 할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의 결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여 스스로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와 같이 자기몰입할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통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개선하고 문제중심적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자기처벌과 통제행동 사이에서 자기몰입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동시에, 자기처벌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이는 자신의 과거 실수나 잘못을 계속 자책하는 경향인 자기처벌에 대한 개선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 방지를 위해 자기몰입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연구 참가자가 20-30대 미혼 남녀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가 기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적용 가능한지 그 외적 타당도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자기보고식 척도의 한계로 인해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 등 주요 변인 측정 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제행동을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므로, 데이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대에 대한 통제행동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에는 과거 데이트폭력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어 왔던 척도의 한계점을 지적해 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이나 사이버 폭력(이기은 등, 2020), 집착행동(이아람, 이정윤, 2021) 등 보다 넓은 범위로 연구를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이 미치는 영향이 내면화된 수치심 각각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 향후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그간 데이트폭력의 다른 유형(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통제행동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비교적 드물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인지적 특성 등 심리적 기제에 대해 다각도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에스더 (2019). 성인애착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63, 35-63.

권진숙, 박지현 (2019). 데이트 폭력 여성피해자의 강압적 통제 경험.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1), 46-58.

김가은 (2022). 폭력 허용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압적 통제의 확대(escalation)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

정학회보, 31(3), 27-60.

김동현, 박주애, 곽대경 (2021).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5(2), 145-160.

김아롱, 김정민, 송근아 (2017).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7(4), 575-595.

김안나, 최보영. (2019).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억제변인과 유발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6(7), 1-27.

김용태 (2010).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해결. *상담학연구*, 11(1), 59-73.

김진숙, 문화진 (2021). 성인 남녀의 통제 행동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젠더 감수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727-741.

김혜원, 이지연 (201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매개변인탐색: 자기몰입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청소년상담연구*, 25(1), 247-270.

남순임 (2018).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억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2), 221-241.

류석진, 조현주 (2017).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반추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3), 339-350.

박영주 (2018). 대구지역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요인 분석. *치안정책연구*, 32(3), 103-140.

박지영, 박주희 (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생애*

- 학회지, 9(2), 69-84.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77-96.
- 신재은, 김철민, 전미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유재학 (2015). 한국판 수치심 경험 척도(K-ES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23-39.
- 안현진, 금명자 (2018).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173-187.
-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유고은, 이창배 (2021).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66, 291-318.
- 윤혜영, 강지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05-423.
- 이기은, 이종현, 김도연 (2020). 데이트폭력 피해가 경계선 성격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통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6(1), 69-96.
- 이숙정, 권호인 (2021). 남녀의 가해동기와 폭력 정당화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PI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4), 391-410.
- 이아람, 이정윤 (2021).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60(3), 177-202.
- 이유경, 장문선, 윤병수 (2013). K-MBSR 프로그램이 방어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대학생들의 자기몰입, 정서조절, 심리적 증상 및 마음챙김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35-52.
- 이인숙, 최혜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인혜 (2008). 자기초점주의가 자전기억의 과일반화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자기초점주의의 적응성과 부적응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633-651.
- 이재란, 정근선 (2020). 국내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 동향 분석. *교정담론*, 14(1), 211-241.
- 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이지영 (2010).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과 정신병리의 관계: 적응적 대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371-388.
- 이지영 (2011). 자기초점적 주의와 정서조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13-133.
- 이지영, 권석만 (2005).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의 개발: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2), 451-464.
- 이태영, 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 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2(6), 2273-2291.
- 이한울, 박지선 (2022). 특권의식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 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55-575.
- 임정하, 최정원 (2022). 대학생의 아동기 불안 정애착과 거부민감성 및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 *생애학회지*, 12(2), 21-39.
- 임천규, 장은비 (202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0(1), 85-102.
- 정남운, 유은영 (2015). 내면화된 수치심의 임상적 타당성: 자기통제력, 공격성 및 중독 가능성과의 상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481-496.
- 정소연, 김동현, 곽대경 (2021). 충동성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관계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5(3), 237-259.
- 조민희, 홍혜영 (2017).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 -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 -. *통합치료연구*, 8(2), 35-60.
- 조윤경, 현명호 (2020).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1), 207-223.
- 조은실, 신미연, 현명호 (2018). 중학생의 자기몰입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변별 어려움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이중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67-185.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최현수, 신희천 (2016). 한국판 관계적 수치심 척도(KISI)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7(2), 81-100.
- 치안정책연구소 (2022). *치안전망 2023*. 치안정책연구소.
https://psi.police.ac.kr/police/board/view.do?bbsId=BBSMSTR_00000000156&pageIndex=1&nttId=158871&menuNo=115006000000
- 허수진, 김보경, 김범준 (2019). 성인의 불안애착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제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법*, 10(3), 195-214.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Aizpurua, E., Copp, J., Ricarte, J. J., & Vázquez, D. (2021). Controlling Behavior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omen in Spain: An Examination of Individual, Partner, and Relationship Risk Factors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2), 231-254.
- Bochon, L., Bird, B. M., & Watson, N. V. (2023). Excluded and ashamed: Shame proneness interacts with social exclusion and testosterone reactivity to predict behavioral aggression. *Psychoneuroendocrinology*, 157, 106355.
- Cook, D. R. (1988).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 Elison, J., Garofalo, C., & Velotti, P. (2014).

- Shame and aggress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4), 447-453.
- Hamberger, L. K., Larsen, S. E., & Lehrner, A. (2017). Coercive control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7, 1-11.
- Harper, F. W., Austin, A. G., Cercone, J. J., & Arias, I. (2005). The role of shame, anger, and affect regulation in men's perpetration of psychologic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2), 1648-1662.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3rd Ed.). The Guilford Press.
- Higa, C. K., & Daleiden, E. L. (2008). Social anxiety and cognitive biases in non-referred children: The interaction of self-focused attention and threat interpretation bias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3), 441-452.
- Hundt, N. E., & Holohan, D. R. (2012). The role of shame in distinguishing perpetra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US veteran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5(2), 191-197.
-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2), 156-176.
- Johnson, H., Eriksson, L., Mazerolle, P., & Wortley, R. (2019). Intimate femicide: The role of coercive control. *Feminist Criminology*, 14(1), 3-23.
- Kivisto, A. J., Kivisto, K. L., Moore, T. M., & Rhatigan, D. L. (2011). Antisociality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facilitating role of shame. *Violence and Victims*, 26(6), 758-773.
- Matheson, F. I., Daoud, N., Hamilton-Wright, S., Borenstein, H., Pedersen, C., & O'Campo, P. (2015). Where did she go? The transformation of self-esteem, self-identity, and mental well-being among women who have experienced intimate partner violence. *Women's Health Issues*, 25(5), 561-569.
- Mor, N., & Winquist, J. (2002). Self-focused attention and negative affec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4), 638-662.
- Stark, E. (2007).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Guilford press.
- Wojcik, K. D., Cox, D. W., & Kealy, D. (2019).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hame- and guilt-proneness: Examining the mediating roles of interpersonal problems in a community sample. *Child Abuse & Neglect*, 98, 104233.

논문 투고일 : 2023. 10. 31
1 차 심사일 : 2023. 11. 20
2 차 심사일 : 2023. 12. 18
게재 확정일 : 2023. 12. 27

The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Controlling Behavior in Dating Relationships: The Mediation Effect of Self-Absorption

Eunsun Park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 dating violence is recently rising 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issues,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on controlling behavior manifested in dating relationship. We explored the mediation effect of self-absorption, indicating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between each of the four sub-factors of internalized shame (inadequacy, emptiness, self punishment, and fear of mistake) and controlling behavior.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200 single people in their 20-30s, it was revealed that the internalized shame, the self-absorption, and the controlling behavior in dating relationships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The mediation effect of self-absorption was significant between the sub-factors of internalized shame (inadequacy, emptiness, self punishment, and fear of mistake) and controlling behavior.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inadequacy, emptiness, self punishment, and fear of mistake, the bigger the self-absorption, and the more frequent the controlling behavior in dating relationship.

Key words : internalized shame, dating violence, controlling behavior, self-focused attention, self-absorption